

性에 關한 純潔教育

서울大學校 醫科大學
泌尿器科教室

—李 熙 永—

第 I 節 序 言

I. 性에 關한 教育(純潔教育)

우리 인간사회에서는 인생의 필수 조건으로 옛날 부터 의식주(衣食住)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의식주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성(性)이다 공자(孔子)께서도 일 왈 식, 이 왈 성이라 했으며 말서스도 먹는 것과 성에 대한 갈망은 영구히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성관계만을 예로 들더라도 정상한 사람은 한번 임신시키는데 202~1434회의 부부관계를 이루게 되고, 일생에는 3,000~5,400회의 부부 관계를 맺게되며, 사람은 일생에 성에 의해서 네번 탄생한다. 즉 제1회 탄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인간으로 태여 날 때, 제2회 탄생은 사춘기 지나 남자는 사정을 하게 되고, 여자는 월경을 갖게 되어 생식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이고 제3회 탄생은 결혼하여 부부라는 사회단위를 구성했을 때이며, 제4회 탄생은 자녀를 낳

아서 어린이의 부모가 되었을 때이다.

우리는 성생활이라고 하면 곧 성표행위에만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고 남녀 7세 부동석을 예외도덕으로 살고 있는 동양 사람은 특히 성에 대한 이야기를 추잡하고 야비하다 하여 회피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이 성에 대한 의곡(歪曲)된 견해를 갖고 있는 수가 많다.

물론 부부의 성기결합이 성생활에 틀림없으나 그것만이 성생활의 전부가 아니며 극히 적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완전한 부부에게는 24시간이 전부가 성생활인 것이다.

성이다른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서로가 남이면서 남이 아닌 또 남이 아니면서 남인 부부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인간사회에서 허용된 이성의 합친것일진대는 부부생활 24시간이 성생활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부간의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지낸다는 것은 침실생활도 24시간의 일부로서 귀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

가 체험한 부인중에는 자녀 여섯사람 이상을 낳을때까지 성관계를 하지 않고 낳았다는 분들을 자주본다. 즉 결혼 20년 동안에 여자로서 갖출 수 있는것을 느끼지 못하고 지낸 가련한 분간증 부인이 한국에는 많다. 이것은 다른 지식은 고등으로 발달하는데 반하여 성에 대한 지식은 공백상태에 있는에서 오는 현상이다. 성생활은 남성에게는 불가결이나 여성에게는 반드시 필요한것도 아니라는 틀린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 건전한 정신적 발달과 건강한 육체적성숙을 한 여성이라면 남성에서와 꼭 같이 성생활이 불가결한 것이다.

성생활에는 정신적 애정과 육체적 애정이 포리일체가 되어야함은 물론이다. 생리학의 웨버의 법칙(weber's law)에서 자극은 쑤하기(X)로 높고 흥분(반응)은 보태기(+)로 증가한다고 하였다. 성감도 오감(五感)의 하나라 성감각대의 자극이나 성 기교 반으르는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어 권태기를 초래 할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정신적 자극이 중요하며 정신적 애정이 없는 성교는 자위(自慰) 행위나 마참가지다.

따라서 성교육의 사명은 본능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갖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지식과 판단을 하여 올바른 인간의 성장에 결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있다. 즉 성교육은 생리나 해

부의 교육뿐이 아니고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이해하는교육, 성품, 개성의 교육, 정서의 교육인 것이고 인생의 교육인 것이다.

특히 명랑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야할 성문제를 덮어두고 암중모색하는 식의 봉건적 사상은 좋지 못하다. 나체화의 극부에 포도잎을 대어 가리웠던 때, 이것을 본 아나톨 프랑스는 「이제부터 포도밭에 들어갈 때마다 성욕을 느낄것이다」고 하여 도리어 풍속에 행복하다는 것을 강조 한바있다.

흔히 4~5 세된 아이들과 시장보라 갔다 오는 어머니가 길가에서 두마리의 개가 교미(交尾)하고 있는것을 만나게 된다. 이때 어머니는 가급적 어린이에게 이 광경을 보이지 않으려고 가진 무리한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럴수록 어린이는 더 보고 싶어한다. 이 때 현명한 어머니라면 부자연스럽게 어린이 눈을 가린려고 들지 말고 보고 싶다면 교미광경을 보여 주라는 것이다. 이 때 어머니는 서슴치 말고 「저기 두마리의 개는 사이 좋게 놀고 있으니 그것을 때리거나 해서 방해하지 말라」고 일러주는 식의 성교육이 어떨까 한다.

II. 子女에 對한 性敎育의 目標

자녀의 순결교육은 계획성 있게 해야 한다. 성교육은 부모의 교육이다.

따뜻한 부모의 태도가 어린이의 마음속에 밝은 등불이 된다. 실교가 아닌 흥미로써 알수있게 명랑하고 과학적인 태도로 자녀에게 킁킁한 비밀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를 둘러싼 환경의 개선을 도모 한다. 부모의 성생활을 보여 주지 않도록하고 6세 이상의兄妹를 같은 방에 재우지 말고 성장한 고용인들과 같이 재우지 않을 것은 물론 그들과의 접촉을 주의한다. 건장한 이성교제를 장려하며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녀의 친구가 되어 주는 동시에 예외를 지켜야 한다. 즉 변소는 “누크”하고 가족탕에 들어가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다.

자녀들의 독서를 지도하고 어른들이 읽는 책을 아무데나 방치하지 말 것이다.

남아는 15~16세에 몽정(夢精)이 있으니 이에 대한 사전교육과 자위(自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한다.

Ⅲ. 생식기(生殖器)의 구조(構造)

특히 어머니 되는 분들은 남자성기를 잘 몰라서 어린이의 교육에 지장이 있는 수가 많다.

남자의 성기와 부성기는 고환(睪丸)이 성장함에 따라서 남성홀몬의 자극으로 커간다.

남자의 고환(한쪽이 약 10gm)에서는 남성 홀몬을 만드는 작용과 애기 씨인 정자를 만드는 두가지 큰 일을

하고 있다. 이 중요한 고환의 발육 상태는 태생기(胎生期), 정지기(靜止期, 생후~4세 까지), 성장기(成長期, 4세~10세까지), 성숙개시기(成熟開始期, 11세~15세까지)까지는 서서히 자라나 다른 장기와 같이 커지지 않으며 남성홀몬을 분비하는 간질세포(間質細胞)나 발육단계의 정자가 겨우 나타난다. 그러나 완성기(完成期, 16~19세까지)가 되면 성숙한 정자와 간질세포가 많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고환에서 계속 만들어진 정자(精子)는 부성기(副性器)인 부고환(副睪丸), 정관(精管)을 통하여 임시 저장소인 정관말단팽대부(精管末端膨大部)까지 자기의 크기의 10만배나 되는 7m의 거리를 19~23일 걸려서 수송되어 여기서 어머니의 젖과도 같은 정낭액(精囊液) 등에 의해 성장하면서 사정(射精)을 기다린다. 따라서 정액이라는것은 그 1/10에 해당되는 정자 이외에 정낭액(40~80%) 전립선액(前粒腺液, 10~30%), 약간의 뇨도분비액등이 합쳐 것이다.

음경(陰莖)의 발육은 13세때 부터 현저히 크기 시작하여 16세에는 급속히 발육하여 만 21세에서는 발육이 완성된다. 발육이 완성된 뒤에는 성교 같은 혼란으로 음경이 커지지 않는다. 성인 남자의 음경의 크기

는 정상시의 길이가 7~8cm 이든 것 치에 불과하고 발기해서 5cm 만 되
이 발기하면 12~13cm 으로 된다. 면 성교에 큰 지장이 없고 정상시의
그러나 이 크기는 어디까지나 평균 길이가 4cm 이하가 아니면 단소음경

표 1 성기의 크기

陰莖의 크기

	平 常 時	勃 起 時
陰莖의 길이	7.4 cm	12.7 cm
陰莖의 直徑	2.8 cm	4.1 cm
陰莖의 周圍	8.3 cm	11.5 cm
陰莖의 容積	40.6 c.c.	143.6 c.c.

陰莖의 크기

	處 女	既 婚 婦	經 産 婦	兒 頭 娩 出
陰莖의 直徑	2.3-3.0cm	4.2-6.3cm	6.5-7.9cm	9.5cm
陰莖의 길이	13.5cm			
陰核의 크기	길이 4-5mm	폭 3-4mm		

(短小陰莖)이라고 하지 않는다(표1) 발기중추(勃起中樞)에 성적 자극 충동이 전달되면 음경으로 들어가는 동맥이 확장하여 음경해면체(陰莖海綿體)에 흘러들어간 혈액량이 정상시의 몇배로 증가하여 음경이 커지는 동시에 좌골해면체근(坐骨海綿體筋)과 구해면체근(球海綿體筋)의 근장, 음경자체의 팽대로 인하여 음경으로부터 나가는 정맥을 압박하는 까닭에 음경으로부터 나가는 혈액이 점차 증가하여 발기가 일어나 음경은 정상시의 3~6배로 커진다. 이것이 남자의 발기현상이다.

여성에서는 13~15세에 초경(初

經)을 하고 49세 전후가 되면 폐경한다. 남성의 고환에 해당하는 난소(卵巢)에서 애기씨인 직경 0.2mm의 백복가루만한 난자를 부인 인생에 양측난소에서 200~400개 낳는다. 이와 같은 배란(排卵)은 월경주기의 장단과 관계없이 다음월경전 12일에서 16일 사이의 5일간의 어느날에 주기적으로 온다. 따라서 1년간이면 약 40일간이 배란기가 된다.

질의 크기는 그 직경이 처녀에서 2.5cm 기혼미산부에서 4.5cm 경산부에서 6.5cm이고 일반적으로 질벽은 신축성이 많다. 질의 길이는 10~13cm 이 된다. (표 1)

남자의 음경 발기에 해당하는 여자의 성적으로 흥분하였을 때의 외음부의 변화는 1) 대전정선(Bartholin腺)에서의 분비물이 증가 하고, 2) 질주위정맥이 충혈하고, 확대하고, 질주위색조가 변한다. 3) 발기한 질전정선이 용기하고, 4) 음핵(陰核)이 발기한다. 5) 음순이 팽대해지고 6) 질촉벽이 부어서 종창해진다. 7) 항문이나 질주위의 근육이 약동하고 등적으로 수축한다. 특히 소음순의 착색도와 발육의 정도는 성생활의 경험에 비례한다.

여기에 남녀성기 결합의 상호관계를 표시하면 그림 7과 같다.

第Ⅱ節 思春期前的 性教育

Ⅳ. 乳幼期の 性教育

젖먹는 시기(乳兒期)에는 구강점막(口腔黏膜)에 채감과 포유(哺乳)와 배설(排泄)에 만족감을 느낀다. 이 때에는 어머니가 옆에 있어야만 잠자는 습관이 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 6개월 이후에는 더욱 그러하다. 불량소년이 되는 아이들 중에는 너무 일찍 동생에게 어머니를 빼앗긴 경우와 어머니가 지나치게 사랑해서 항상 옆에 끼고 눕는 습관에서 자란 수가 많다.

몸을 깨끗이 하고 특히 성기에 대해 신비감이나 이상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 국부(局部)의 청결과 대소변을 가리는데 강제적 훈련을 말아야 한다. 성기(性器)와 대퇴(大腿) 사이에 여유가 많은 깨끗한 옷을 택해야 한다. 나체(裸體)가 되면 상처를 입기 쉽고 감기가 들고 성기가 가장 중요한 신체의 부분이므로 청결히 할 것을 알려준다. 즉 청결을 사랑하는 감정을 갖는 때부터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인간성을 부여한다.

포유배설의 만족감 뿐만 아니라 충분한 애무(愛撫)로 안정감을 주어 정신적 영향으로 뇌세포(腦細胞)의 발달을 촉진시켜야 한다.

유아기(乳兒期, 1~5)세가 되면 자신의 몸에 흥미를 가지는 때이다. 미(美)를 보는 눈과 마음을 기르는 때이므로 성기의 청결이 중요함을 아시켜준다. 노도(尿道)와 성기는 눈, 코, 입과 같이 세균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믿게 해야 하며 또 요충(蟻虫), 목욕시의 자극, 유방(乳房)을 만지는 대신으로 성기를 만지는 습관이 생기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사전에 손을 씻는 습관, 손톱을 자주 깎는 습관, 용변후에는 변소에서 옷을 단정히 입고 나오는 습관, 개처럼 아무데서 소변 보지 않는 습관을 길러주고 연장아(年長兒)와 놀 때는 나쁜짓을 배우지 않도록 하며

성기에 손이 가지 않도록 한다. 친진 난만한 질문에 정당한 답변을 한다. 흔히 자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보여 달라는 아이들에게 다리(橋) 밑에서 주어 왔느니 배꼽에서 나왔느니 하는 일그러진 답변을 한다. 이런 때에는 『어린애가 충분히 커서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추운 밖으로 나와도 괜찮게 되면 어머니 배아래에 있는 어린애 나오는 문이 열려서 나온다. 그러나 어린애가 나올 때 이외에는 닫혀 있으므로 보여줄 수는 없다』고 적절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칠살은 따로 하든지 커튼을 쳐서 부모와 따로 재우도록 한다. 무더운 여름에도 아내에게 이불을 뒤집어 쓰도록 한 남편이 있었는데 그는 어렸을 때 부모의 그 광경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자라는 우월감을 갖지 않도록 동등하게 대우 할 것이고 여아만을 부엌일을 시킨다든지 하는 차별대우는 나쁜 결과를 가져 온다.

성에 관한 농담을 아이들이 듣는 데서 하지 않도록 한다. 이 시기에는 어머니의 태도를 많이 닮는다. 외국에서 4~5세 되는 200명의 어린이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색(色)종을 고르게 한바 그 반수에서 자기가 좋다는 색종의 빛이 별실에 걸린 어머니들의 옷빛이었고 그 다음이 자기 옷빛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무의식중에 걸린 자기잠옷빛이 어린이에게 중대한 영향을 준다.

유유기에 받은 정서적(情緒的) 폭은 성장한 뒤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대인관계(對人關係)에서도 파멸을 가져올수 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라는 말같이 어려서부터 옳은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매력있는 여성미도 또한 어려서 생기는 것이다.

V. 學齡期前半(6~10세)의 性 教育

이성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로서 잡지 같은데서 틀린 성지식을 얻기 쉽다. 가축을 기른다든지 동물기(動物記)를 읽혀 생물은 다 같은 생애(生態)라는 자연스러운 교육을 시킨다. 국민학교 5~6학년이 되면 소화기(消化器)나 호흡기(呼吸器)의 지식과 같이 성기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정확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

건전한 남녀교제를 갖도록 유도한다. 책의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

이 시기에 흔한 야뇨증(夜尿症)은 사춘기전에 고쳐주어야 한다.

대개 생후 21개월이면 낮에는 오줌을 가리고 27개월이면 밤에도 오줌을 가리게 되지만 만 3세까지 야간이나 주간 자기도 모르게 외박·잠자리에 오줌을 싸는 경우를 야뇨증이 라하는데 물론 어른에서도 있

을수 있다. 소아의 10~26%에서 보며 미국엔 200만이 있다고 한다(1950), 야뇨증의 대부분은 정상방광용적에 달하는 배뇨훈련이 나쁜데서 오며(90~95%) 뇨로의 병등으로 오는 것은 드물다. (5~10%) 야뇨증의 예방과 치료는 다음과 같다.

- 1) 양친이나 보육자는 친절하게 대하여 환아가 자진해서 배뇨하려고 노력할 때까지 고부함이 필요하다.
- 2) 배뇨하는 경로를 편히 해준다. 변소가 멀거나 좁거나 하면 더욱 조장된다.
- 3) 과중한 학과, 과로, 처벌 등을 피한다.
- 4) 정신위생 특히 수면, 식사, 운동, 휴양 등의 개선에 힘쓴다.
- 5) 하루 3~5회 규칙적인 배뇨와 잠자기전의 배뇨를 시킨다. 낮잠으로 밤에 자는 시간을 줄인다든지 하지(下肢)를 높이는 것은 효과가 없다.

야뇨증의 가정요법은 양친의 협조 특히 어머니의 치료법 숙지(熟知)에 있다.

- 1) 유아가 서기 시작하면 배뇨훈련을 시킨다.
- 2) 방광용적이 제대로 발육 되지 못해서 오는 야뇨는 중요하다. 잠자기전의 수분제한 발중 일정한 시간에 깨게하는 경중시계법, 상을 쫓는 것등은 방광용적이 미쳐 크지 못한 야뇨증 소아에는 효과가 없다. 소아는 4세 반이면 2세때의 2배로 방광용적이 커지므로 3~4

세때에 야뇨증을 예방함이 좋다. 치료전에 방광용적이 400c.c. 이상이 되는지 조사한다. 50~200c.c.의 용적인 때에는 낮에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 뇨의(尿意)를 느껴도 30~40분 참게하여 방광용적을 증가시키고 배뇨간격을 연장시킨다. 3~6개월만 계속하면 방광용적이 만족할만큼 된다. 이렇게 해서 낮에 누는 일회의 뇨량이 300~400c.c.가 되면 완치된다. 여기에 오줌을 멈추는 팔약근(括約筋)의 훈련을 위해 “누다—멈추다—누다”하는 훈련을 곁하는 것이 좋다.

- 3) 생활환경을 바꾸어서 새로운 사회에 흥미를 갖게해 준다. 전쟁중에 집단소개한 아동과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보통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보다 야뇨증이 더 많다.
- 4) 오후 4시 후에는 수분을 끊하고 건조식을 주는 것은 효과가 없다. 정상아는 물을 많이 마셔도 뇨의를 느껴서 깨어나지만 야뇨증의 아이는 50cc 나 200의 물이나 마찬가지로 오줌을 싸기 때문이다.
- 5) 밤중에 깨웠을때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졸면서 배뇨하는 것은 오히려 야뇨증을 악화시킨다.
- 6) 방광용적이 정상인 야뇨증에서는 야뇨예정시간에 경중시계(警鐘時計)를 자신이 맞추어 놓고 깨서 누고 또 다누어 놓든지 남아의 경우는 음경관상구(陰莖冠狀溝)를 감자(鉗子)로 집어서 오

좁이 찬 때는 노도가 확장되고 아파서 잠이 깨도록 한다. 이런 기계를 씌우므로서 귀찮아서 오줌을 안싸는 노력을 시킨다. 7) 깊이 잠든 아이에게는 자동전기속 장치나 경종등의 장치있는 기계를 쓴다. 8) 제멋대로 방임(放任)해주는 방법도 있다. 이때는 칩구 의복을 일주일회 세탁해 주므로써 냄새나는 칩구 의복이 싫어서라도 안싸려고 노력한다. 9) 오줌 안싼 날은 상을 주고 오줌을 싼 날은 금속 사운드(sound)나 알콜피하주사(alcohol 皮下注射)로 동몽을 일으켜서 벌을 주는 방법도 있으나 후자는 효과가 좋지 않다. 이외에 약물요법, 원인제거 요법이 있다.

第Ⅲ節 思春期の 性教育

VI. 學齡期後半(思春期)의 性教育

이성을 완전히 인식하는 때이다. 남아는 여아곁에 있고 싶고 여아를 울려 주고 싶고 여아는 남아의 마음을 끌려고 애쓰고 의복이나 머티의 모양을 낸다.

남아는 13세가 되면 제2차성징 즉 발모(發毛), 성대(聲帶)의 변화, 피부의 변화가 오며 여드름이 나고 년장(年長)한 여성을 따르게 된다. 이는 남성호르몬의 영향이다.

여아는 10~11세에 유방이 커지고 1~2년후 초조(初潮)가 온다. 평균만 13~15세 빠르면 만 10세에서도

본다.

부모는 이성을 알기 시작한 자녀의 성장을 축복해 주어야 한다. 이 시기에는 머리가 나쁘다, 얼굴이 못생겼다, 입에서 냄새가 난다는 등의 결함을 직접 말해 주는 것은 역효과를 가져오고 비사교적으로 되기 쉽다. 어른이 되었다는 칭찬을 아끼지 말 것이며 어른으로 대해 줄것이다.

월경교육은 국민학교 5학년에서 미리 시작하고 초경후에는 확실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축하하는 동시에 산아 육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준다. 초조후 2~3년간은 정신 자극, 불규칙한 생활, 자극성음식, 흥분, 파격한 운동이나 영화 등을 피해서 불규칙한 월경, 우울, 안정안된 정신상태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월경대 사용법등 위생에 세심한 교육을 한다.

이러한 어른으로 되는 과도기의 특징은 비밀이 많아서 자폐성(自閉性)이고 반항적이고 파괴의 본능을 나타내고 미에 대한 등경심이 크고 영응승백심, 자기양친에 대한 경멸이 생기고 수치심이 예민해지고 강한 제력과 생명력을 나타낸다. 이 시기는 일생에 사망율이 가장 낮은 때이며 死因은 첫째가 자살 그 다음으로 사고사이다.

Ⅶ. 自慰行爲의 올바른 認識

자위는 생리적인 성욕의 발현으로서

남자는 15세, 여자는 13세에서 가장 많이 시작하여 16세까지 남녀의 60%, 여자는 20세까지 58%, 남자는 20세까지 97%가 경험한다. 일생중 남자는 90% 이상, 여자는 60% 이상이 자위를 경험하고 기혼여성의 55%는 결혼후도 계속한다.

몽기는 우연한 성적충동에 시작하는 것이 반이되고 1/3은 친구나 영화, 잡지등에서 습득한다. 또 열격한 가정의 억압에서 자란 사람이 평화로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보다 많다.

도를 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리적인 자연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해가 된다고 해서 죄악시 한테서 자위공포증으로 온 성적신경쇠약 등의 피해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런 틀린 생각은 올바른 성의 교육으로 시정해야 할 일이다.

자위를 죄악시하게된 원인은 남들 배하는 것이고, 어른들의 해류다는 경고, 성은 더러운 것이라는 옛부터의 생각, 머리가 나빠진다고 놀려대는 습관, 자위에서 손을 떼려고 해도 되지 않는 자기혐오심과 열등관념등인데 이들 죄악감은 드디어 성적신경쇠약 혹은 그 이상의 질병으로 발전하여 잘못된 자위의 인식으로 정신신경병까지 초래한다. 도를 지나치지 않는 자위는 결코 해롭지 않다.

결혼초에 생리적으로 오는 남녀의

불감증을 결혼초의 성생활이 기대한 것보다 황홀감이 적다고 해서 과거의 자위의 탓으로 돌리는 수가 많다. 자위로 오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1) 자위자체는 해가 없고 자위공포 증만이 해가 된다는 확고한 인식 2) 자위의 금지교육은 역효과를 가져오므로 스스로 도수를 줄이도록 할 것. 3) 빈민이나 열등감을 버리도록 할 것. 4) 자위에 정신을 쓰지 말도록 할 것. 5) 도수가 심하면 운동, 음악, 기타 취미생활로 정신을 집중하여 쾌활한 사회생활로 유도한다. 6) 결혼초의 성적부조화를 자위와 결부시키지 말것 등과 7) 이미 갖고 있는 죄악감을 버리도록 성의 생리를 납득시켜 안심하게 해야 한다.

VIII. 生理的遺精(夢精)과 性夢

몽정이나 성몽은 생리적현상이다.

건강한 성인 남자는 83% 경험하는 것으로써 급육을 하는 경우에는 한달에 2~3회의 몽정을 한다. 보통 이성과의 육체적 접촉을 끊으면서 사정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그릇에 물이 차서 넘치는 것과 같다.

그러나 10일에 한번 하는것은 정상이나 그이상 도수가 잦고 동통이 있는 때는 파민성이거나 도가 넘는 자위나 성교중단법이 잦거나 정낭, 후부뇨도의 병변이 원인이 되는 수가 있다.

동정은 성기가 성숙되어서 오는 자연적인 생리현상임을 인식시키고 취침전배뇨로 방광을 비우고, 자극성 음료의 제한, 성자극을 주는 조건을 멀리하고 변비(便秘)를 예방하고 냉수욕을 하고 Bromides 같은 약의 복용과 후부노도의 충혈(充血)을 방지하는 동시에 연한 초산은용액(硝酸銀溶液)을 후부노도에 주입하여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은 70%에서 성몽을 경험하는데 그 40%가 극치감을 느끼고 1년에 3~4회 있게 된다. 「킨제이」는 여성의 성몽의 90%가 이성애(異性愛)의 꿈을 꾸고 그 1/3은 실지 성교하는 꿈을, 1/3은 애무하는 꿈을, 1/3은 이성을 사랑하는 꿈을 꾸는다고 한다. 이 때 분비액은 주로 Bartholin선에서 나오며 치녀에 있어서는 자위가 원인이 되는 수가 있고 부인에 있어서는 남편의 조루로 정상성교에서는 성적만족을 얻지 못한 때, 남편사후의 장기금욕, 남편의 성교불능증 등에서 시작한다. 도수가 빈번하고 치료를 요할 정도인 때는 냉수욕이나 브트마이드를 쓴다.

IX. 非行少年少女의 初期症狀

매년 증가하는 비행소년소녀는 미국의 예를 보면 250만의 범피취급건 중 46%가 18세 미만이라 한다. 일본에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강간

죄, 8,230건중 소년이 4,599건이고, 1956년에는 소년강간죄가 45%이던 것이 1958년에는 54%로 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의 소년범죄사건이 남자 17,367건, 여자 632건이었다.

이들의 참고되는 증상은 지금까지의 정상한 생활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은어(隱語)가 많아지고, 칼같은 좋지 못한 소지품을 가지고 다니며, 야간의출이 잦고, 낯선 친구들이 잘 찾아오고, 학교에서 늦게 돌아오고, 편지나 전화에 몹시 신경을 쓰고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끈기가 없어지고, 공부할 잘 안하고, 책임감이 없어지고, 학교성적이 급작히 나빠지고, 용돈을 헤프게 쓰고 의복에 까다롭고, 식사를 잘 안하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이성과의 교제가 많아진다.

X. 性病의 豫防

근간 성도덕의 문란으로 성병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부모나 보육자로서 성병의 예방은 물론, 그의 치료면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흔히 보는 성병에는 임질(淋疾), 매독(梅毒), 비임균성노도염(非淋菌性尿道炎), 연성하감(軟性下疳), 성병성인파육아종(性病性淋巴肉芽腫, 第四性病) 등의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입질, 매독, 비임균성노도염 따위가 많다.

수년전만해도 급성입질로 내원하는 환자는 보기드물 정도였으나 근간에 와서는 눈에 뜨일만큼 많아졌다. 이와 같은 증가경향은 구미제국이나 일본에서도 주목거리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연간 150만명의 입질환자가 있으나 그중에서 신고되는 것은 겨우 1/6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근간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바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만한 사실은 19세 미만 소녀와 성병문제다. 즉 영국의 초기매독 및 입질환자 통계에서 19세 미만소녀들의 이환율은 1950년에는 전여자환자의 14.6%이던 것이 1960년에는 34.5%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같은 연령층 남자는 3.17%에서 4.9%로 증가하였을 뿐이다. 입질만 해도 1951년에서 1961년 사이에 이들 소녀에서는 18.6% 증가하고 있다.

이들 소녀의 가정환경을 살펴보면 대부분에서 부모전체가정이라는 외의의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 망국병을 막기위해서 첫째 성교육의 필요성과 성도덕의 문란을 느끼게 되며, 둘째 오염원의 근절을 위해 자유매음행위를 엄격히 감독관리하는 필요성을 통감하며, 셋째 특히 여자환자에서 입질이 많은 것은 이들에서는 2~30%

에서 전혀 증상이 없이 임균이 발견되며 임균성노도염을 일으키는 것은 약 50%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남자보다 고통이 적어서 입질에 걸린것을 모르고 지낸다는것이 한가지 이유이다.

第Ⅳ節 婚前指導

XI. 童貞과 處女性的의 意義

미국의 10대소녀중 20%만이 동정을 갖고 있고 영국은 결혼식까지 36%, 일본에서는 20세 독신 청년중 30%가 동정이다. 즉 3명중 1명만이 동정으로 결혼한다. 일본의 예에서 444명의 동정이 처음으로 성교를 경험한 상대는 매춘부가 41%, 직업여인이 16%, 애인이 13%, 여학생이 8%, 미망인이 6%, 가정부인이 4% 식모나 고용인이 3%이다.

치녀막의 파열시에는 많아야 몇 cc의 출혈이 있으나 곧 지혈되고 동통보다는 공포심이 더 크다. 여자가 남자를 신뢰하는 도가 클수록 동통없이 진행될수 있다.

치녀의 26%는 초야에 출혈이 없다. 첫 성교에서 동통을 느끼지 않는 치녀는 8%, 또 24%가 첫 성교에서 극치감을 느낀다.

치녀성이란 마음의 문제이고 형태상으로는 알기 어렵다. 즉 치녀와 비치녀는 육체적으로 차가 있는 것

이 아니라 심리상으로 다를 뿐이다.

XII. 結婚의 必要性和 그 時期

동물은 성욕의 충동을 받는대로 만족을 구하여 자양도 본능적이며 육체적인데 비하여 인간은 이성(理性)으로써, 육욕(肉慾)보다 영욕(靈慾)을, 향락(享樂)보다 이상(理想)을, 순간으로부터 영원으로 옮기는 약속이 있으며 이것이 즉 결혼이다. 일부일부(一夫一婦)의 결혼은 인간본능인 성욕의 기갈(飢渴)을 만족시키며 다른 이성(異性)에 대한 본능을 제어(制禦)하는 성생활의 조절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결혼이 필요한 것이다.

평균수명을 기혼자, 미혼자, 사별자, 이혼자들과 비교하여 보면 결혼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장수한 사람 6,000명을 조사한바 이 중에는 홀아비나 노처녀 같은 사람은 한분도 없었다. 피살율(被殺率)을 볼 때 기혼자가 1이면, 미혼자가 2, 사별자는 4, 이혼자는 5.5의 비로 기혼자가 적고, 또 간경변증(肝硬變症)에 걸리는 율을 기혼자를 1로 하면 미혼자는 2.5, 사별자는 3, 이혼자는 5의 비로 역시 기혼자에서 가장 적다. 이들은 결혼으로 심신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부부간의 애정은 정신과 육체가 수레의 두 바퀴같이 된것인데 균형이 깨어지면 부부간의 사이가 벌어

진다.

결혼의 안전선은 성적매력으로 성적매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한 접촉제(接觸劑)의 역할을 하여 사이가 깨어지지 않는다. 결혼전 교제의 목적은 이같은 정신적, 육체적 애정이 일치된 성적매력을 높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미지의 세상에 들어가므로 이혼과 불감증이 많은 봉건습관(封建習慣)을 벗어나는데 있다.

결혼전에 고쳐야 할 병들도 잊어서는 안된다. 일단 결혼하면 작은 병도 고치기 힘들게 되고 심생활에 지장이 되어 구취(口臭), 액취(腋臭)로 이혼한 예들을 본다.

청결부족, 충치(虫齒), 치조농루(齒槽膿漏), 위장장애(胃腸障礙) 등으로 구취가 난다. 하루 3번, 식후 3분이내에 3분간 이를 닦도록 한다.

액취, 피부병, 코고는 습관, 여성의 무음모증(無陰毛症), 남자의 도경(包莖)등은 결혼전에 고치는 것이 현명하다.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면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 16세는 임신할수있는 조건은 가지고 있으나 성의 성숙이 완성 못되었고 정신적으로도 미성년이어서 주부로서 자책을 갖기 어렵다.

미국의 초혼 연령은 (1955) 남자 23.4세, 여자 20.6세이고 영국은 남자 26.3세, 여자 23.9세이고 일본은

남자가 26.6세, 여자가 23.8세이고 우리나라는 남자가 25.6세, 여자가 21.2세이다.

민법에는 남자 18세, 여자 16세지만 남녀 모두 18세가 좋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4~5세 장수하므로 부부연령차가 많지 않은 것이 좋고 여자의 혼인연령은 23세 전후가 좋겠다.

第 V 節 圓滿한 夫婦生活

XIII. 올바른 性行爲

1. 성교회수

Dickinson 의 526쌍의 부부에게서 일주의 성교회수는 2~3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1~2회였다. Kinsey 의 보고에서는 21~30세 사이에서는 일주 2.89~3.34회, 31~40세 사이에서는 일주 2.05~2.45회, 41~50세 사이에서는 1.74~1.80 회였다. 일본의 시노자끼(篠崎)는 20~29세에서 일주 2~3회, 30~44세에서 주 1~1.7회, 45~50세에서 주 0.4~0.6 회라고 한다.

필자가 조사한 한국 사람의 회수는 20~30세간에는 일주 2~3회가 많고 30~40세는 1~2회, 40~50세는 10일에 1~2회가 많았다.

회수에 대한 필자의 지론은 다음과 같다.

(1)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때 피

로감이 나지 않는 정도가 적당한 회수이다. 성행위후에는 육체적피로(大體質的疲勞)와 내분비체의 피로가 크고 소모되는 체력은 주목할 것이 못된다. 따라서 회복은 영양으로가 아니고 수면, 기분전환등의 휴식으로 된다.

(2) 신경이 활동한 후 몸안에 생기는 특성을 가진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교후에 피로를 느끼게 될것이다.

(3) 성교회수는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예전에는 정액사출은 생명의 단축으로 믿고 심지어는 정관절찰로 정액의 체외 배출을 막아 줄어질수 없을까를 실시해본 학자도 있으나 효과 없음이 알려졌다. 정액내에는 남성호르몬은 극히 미량 함유되어 있고 철이나 눈물같이 생리적으로 체외에 배설 되는 것이지 무슨 필요하고 중요한 물질이 함유된 것이 아니다.

(4) 양(量)보다 질(質)을 존중해야 한다. 성교회수에 구애되지 말고 한번 가지는 성관계를 최고도로 충실히 할수있도록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자.

(5) 정자형성작용의 완전한 회복은 5일을 요한다. 1회 사정후 정자형성작용이 완전히 회복되는데는 5일이 걸린다. 따라서 전 인간의 성교빈도는 5일에 1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6) 욕망과 체력은 일치하지 않는다. 신혼시절에 특히 그러한데 성욕이 체력을 능가하는 수가 많다.

(7)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성교 회수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Dickinson의 조사는 매일 혹은 그이상 성교하는 부인이 16%였으며 매일해도 좋다는 부인이 60~70%가 되었다. 여성은 35~44세와 45~54세에 성교 회수의 차가 없다.

남자에 있어서는 성욕의 주기적변화가 없으나 여자는 월경직전, 월경과 월경중간에 성욕의 고조(高潮)가 있다.

2. 성교시간

성교시간은 3~5분을 요하는 것이 많고 1~3분이 그 다음이다. 5분이 내가 $\frac{2}{3}$, 5분 이상을 요하는 것은 $\frac{1}{3}$ 밖에 안된다. 1분 이내는 병적이라고 할수는 없어도 정상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극치감이 지속되는 즉 사정이 지속하는 시간은 10~15초이다. 성교회수는 많은것 같으나 일생에 성교로 소비하는 시간은 약 15~18일 정도이며 극치감에 소모되는 시간은 15~18 시간에 불과하다.

사람과 같이 정란말단팽대부가 발달되어 있어 임시저장을 하고 있는 소나 말은 성교시간이 짧고 정관말단팽대부가 없는 개나 고양이와 성

교시간이 길다.

XIV. 性慾의 發展相

남자는 20세 직전에 성욕이 최고에 달해 30세까지 유지되고 40세부터 감퇴하기 시작한다. 여자는 30세 직전에 최고로 되어 35세까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40세가 되면 극히 경하게 내려가기 시작해서 50세까지 간다. 따라서 폐경(閉經)은 다만 아이를 낳을수 없다는 신호이지 여성으로서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이 남녀에는 성욕강도에 10년이라는 차이가 있다.

결혼초에는 여자가 피동적이지만 시일이 경과하면 점점 적극성을 띠워남성을 능가하게 된다. 남편 40세는 성의 지력때이지만 부인 35세는 성적으로 극히 난숙(爛熟)한 때이다. 장년남자와 연소한 여자, 약년(若年)남자와 연장한 여자의 결합은 이런 것이 한 이유가 된다. 남자의 성감부위는 성기에 국한되고 비교적 단순하다. 또 남자의 이성접촉욕의 발전은 이성과 막연하게 교체해 보고 싶다는 욕망에서 어떤 한 여성과 행동하고 생활하려는 욕망으로 또 그 여성의 육체에 접촉하여 성교를하려는 욕망으로 급속도로 진전하는 소위 급진형(急進型)이다.

그러나 여성은 성감대가 복잡하다. 피부가 점막(粘膜)으로 이행하는 부

위, 피부와 검막이 접촉하는 부위, 검막이 닿히는 부위등이 예민하다. 주로 음핵에서만, 또는 질에서, 음핵과 질 모두에서 느끼는 여성들이 있다, 즉 극치감을 질에서 느끼는 여성이 $\frac{2}{3}$, 음핵중심의 외음부에서 느끼는 여성이 $\frac{1}{3}$ 이다. 여성의 성욕 발전상은 이성과의 정신적 접촉이 앞서고 이성의 육체와의 접촉에 쾌감을 갖게되다가 간접적으로 정서를 누리면서 성교에 들어가는 소위 점진형(漸進型)이다. 또 여성은 남성처럼 폭발적으로 성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성적경험의 축적으로 점차 그 태도가 변화한다.

여성은 성욕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남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적응성이 커서 남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남자의 성욕, 성적태도에 적응한다. 따라서 처녀와 결혼한 남자는 자기에게 알맞게 부인을 유도할수 있으나 이미 다른 남자와 성적경험이 많은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이것이 힘들고 조루를 호소하는 예가 많다.

XV. 家族計劃과 幸福한 家庭

사람은 자연환경속에서 자기의 생명 보존과 자손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서 온갖 이성(理性)을 다 하여 생활조건을 개선 향상시키려고 노력할 때 근대생활의 생활기술로서 필연적으로 이상적이고 적당한 가족구성(家

族構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가족계획의 유래인 것이다.

가족계획은 다음의 두가지를 목표로 하여 추진된다.

첫째 가정경제상태(家庭經濟狀態)에서 볼 때 자녀일생의 완전한 보육(保育)과 교도(教導)는 가정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근래의 생활비 보육비(保育費) 그리고 교육비(教育費)는 높아져서 자녀 한 사람을 제대로 길러 사회에 내보내기 까지는 막대한 비용이 들며 자녀의 수가 많으면 자연히 부모의 부담이 과중해진다.

그 가정의 수입은 얼마늘지 못하는 반면에 부양할 가족수가 늘어갈수록 식량, 피부, 주택, 교육, 보육휴양 등 인간생활에 필요한 지출이 수입을 훨씬 넘어서 누차적(累次的)으로 증가하여 자녀의 충분한 보육이 되지 않고 활동에 필요한 건강과 지적향상을 바랄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온 가족의 행복이 있을수 없다. 따라서 부모는 자기가 책임질수 있는 수의 자녀를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모체의 보호의 입장에서 볼 때 임신, 분만, 산육, 수유등은 모체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관계를 가진다. 백육의 가루만한 임란(胚卵)이 280일간에 어머니 뱃속에서 30여 배로 커져서 3kg의 실생아로 분만되

고, 수유기 1년동안에 90억배로 커서 9 kg의 유아로 발육성장 하는바 이에 소요되는 어머니의 육체적, 정신적 소모는 대단히 크다. 따라서 적당한 출산간격을 두지 않고서는 어머니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전번의 임신, 출산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다. 때로는 수유중에 임신함으로써 유아에 쓰이는 정력과 태아에 쓰이는 소모와 부담이 증첩되어 어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태어나 유아가 다 같이 건강한 자녀가 되지 못하고 출산장애도 많다. 심하면 난성병을 일으키게 된다.

자녀 때문에 모체를 희생시키지 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분만 후 1년은 사랑하는 어린이의 보육에 소비하고 다음 1년은 다음 임신을 하기 위한 준비와 휴양으로 지내어서 3년 터울로 출산하는 것이 좋다. 즉 세살 터울로 세 사람의 자녀를 35세 까지 낳고 단산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와 같이 가족계획은 산아제한이 아니라 출산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질서하게 낳지 말고 계획적으로 자기가 낳고 싶은 때에, 자기가 원하는 수(Every Child, a wanted Child)의 자녀를 낳아서 충분히 보육교도시킴으로써 모성의 과중한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온 가족의

생활을 향상시켜 행복을 누리자는 것이 그목적이다. 사랑하는 자녀의 장애와 행복을 위해서나 사랑하는 부인의 건강을 위해서나 가족계획은 행운을 갖다주는 것이라 하겠다.

XVI. 不妊症夫婦

원하는 이상으로 자녀가 많아도 걱정이지만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는 부부는 대단히 불행하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문제는 인류 역사가 시작하여서 부터 있어온 일이며 최근까지도 그 원인이 여자 측에만 있는 것으로 믿고 어리석은 일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근간에 와서는 아이를 못낳은 부부는 그 책임이 부부에게 반반 있다는 것을 깨달고 부부동반 하여서 진찰을 받는 좋은 경향이 많아졌다.

불임증이라 함은 수태가능연령부부간에 정상결혼생활을 하면서 3년 이내에 임신불합을 말하나 4년 이후에도 임신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은 참고가 될 뿐이고 절대적인 것은 못된다.

불임증환자 중에는 임신경험이 전혀없는 원발성불임증(原發性不妊症)이 대부분이고(68~84%), 유산이나 정상분만을 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임신 못하는 속발성불임증(續發性不妊症)은 적다(16~23%).

기혼부부 중에서 아이를 못낳는 불

임부부는 10~20%가 되며 그중에서 남자측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26~40%고, 여자측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45~64%고, 남녀양쪽에 원인이 있는 것이 22%가 된다. 따라서 남녀불임증원인의 비율은 2:3이 되는 것으로써 여자측에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틀린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상적으로 임신할려면 다음과 같은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1) 남자의 고환에서 정자가 정상 수치로 생산되어야 한다.

2) 고환에서 생성된 정자는 남자의 체외로 사정될 수 있도록 정자동로 가락하지 않아야 한다.

3) 정상성교를 할 수 있도록 남녀 성기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질내에 사정된 정자가 자궁경관을 통해서 상승할 수 있도록 경관점액성분(頸管粘液成分)이 정상이고 경관에 폐쇄가 없어야 한다.

5) 자궁에 올라간 정자는 다시 난자를 만나서 수정하기 위하여 난관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난관에 폐쇄가 없어야 한다.

6) 난소(卵巢)에서 정상난자가 생성되고 배란이 되어야 한다.

7) 난소에서 배란된 난자는 정자를 만나기 위하여 난관으로 자유로히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8) 난관 팽대부(卵管膨大部)에서 정자와 만나 수정된 입란(胚卵)은 자

궁으로 내려와 자궁내막에 착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궁이 영양을 주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일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조건 중에서 어느 한가지에 결함이 있으면 불임증이 된다.

필자가 조사한 남자에서 보는 중요한 불임원인에는 임균성부고환염(淋菌性副睪丸炎), 결핵성부고환염(結核性副睪丸炎), 고환발육부전(睪丸發育不全), 정류고환(停留睪丸), 정계정맥류(靜系靜脈瘤)등과 원인불명이 많았다.

남자의 정액이 임신시키는데 충분하려면

1) 사정량이 3c.c. 이상 있고

2) 정액 1c.c. 당 정자수가 6,000만 이상 있고

4) 활발하게 움직이는 정자가 60% 이상 있고

4) 크기가 0.05~0.07mm에 타원형의 머리를 한 정상형의 정자가 80% 이상 있어야 된다.

여자측불임원인의 중요한 것을 들면 자궁발육부전(子宮發育不全), 자궁우경증(子宮右傾症), 자궁전굴(子宮前屈), 만성부속기염(慢性附屬器炎), 자궁질부미란(子宮腔部糜爛), 경관염(頸管炎), 질염(膣炎), 난관폐쇄(卵管閉塞), 난소발육부전(卵巢發育不全)등외에 원인불명이 있다.

이와 같은 불임증은 그 원인을 찾

아서 치료 할 것이나, 근래 발달하고 있는 인공수정에 쓰는 냉동정액은행(冷凍精液銀行)의 이용은 흥미 있는 사실이다.

XVII. 寢室의 改善과 素朴한 服裝

생활의 1/3 을 보내는 침실의 개선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소한 침실에 자물쇠를 잠그도록 하고 커어텐이라도 치도록 할 것이다.

남성은 침실의 조명을 즐기며 눈으로 보는 자극으로 흥분한다. 반면에 여성은 조명이 심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고 시각(視覺)에 의한 흥분없이 반암흑 속에서 사랑을 즐기려고 한다. 그리고 행위중에는 남자와는 반대로 소리, 빛, 냄새등의 외래자극에 예민하다.

이와 같은 특성에 알맞도록 조명, 색채, 구조 등을 개선함이 필요하다.

움직이는 집 혹은 날개라고 할 수 있는 의복의 기원은 수치, 보호, 성적도발, 미신, 기후, 장식, 정조보호, 표식, 예의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성적도발(性的挑發)을 위해 의복이 쓰임은 사실로써 근래에는 보이지 않고서 보이는 것 이상의 자극을 주도록 노출주의(露出主義)가 발전했다.

그러나 여성의 육체는 청결하고 단순소박한 의복과 눈에 떠일가말가

한 정도의 화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XVIII. 性交不能症(임포텐스)과 不感症

남자의 음위(陰萎)는 성욕, 발기, 성교, 사정, 극치감중에서 어느 하나 이상이 불충분한 때 나타난다. 병원에서 흔히 보는 것으로는 성교에 대한 흥미가 없는 것, 발기가 불충분한 것, 질에 삽입하자마자 음경이 쇠퇴하는 것, 극치감을 못느끼는 것 발기했다가 여성이 무슨 일을 하거나 애기도중에 쇠퇴하는 것 등이 있다.

원인은 성기의 기형이나 병등으로 오는 이상, 신경계통질병, 급성, 만성 질환, 각종 중독, 당뇨병, 고환발육부전, 내분비장애, 과도한 자위, 성교중단, 콘돔의 장기사용 등과 또 성기에는 장애 없이 성중추(性中樞)의 지장으로 온다. 그러나 가장 많은 원인은 정신적 원인이다. 즉 신경쇠약, 성병공포, 동성애, 성교능력에 자신을 잃은 때, 임신공포, 장기간금욕후 등에 온다.

성교불능증의 치료는 근본원인이 되는 병을 고치고 약물이나 카테에터(catheter)를 삽입, 정신치료, 강정식과 비타민을 섭취하며, 냉수욕으로 성기, 성중추에 자극을 주고, 전기로 성신경을 자극하고, 성교훈련기계의 사용과, 홀론투어를 한다.

여성의 불감증은 성욕이 약하고 극치감을 못느끼는 것이다. 정상한 부인 5명중 1명은 불감증이다.

불감증의 원인은 해부학적인 것으로는 성기발육부전, 해산시의 손상, 성기나 뇨도의 염증, 처녀막비후, 질의 협착, 자궁의 위치이상, 유착, 월경곤란증, 남녀성기의 불균형 등이 있고, 또 심리적인 원인으로는 엄격한 교육, 정신적타격, 신경증, 자위입신공포, 동성애기질, 남자성기의 단순, 권태, 수태조절공포, 자기가 미인(美人)이어서 남자도 미남자다야 한다는 생각 등이 있다. 여자를 감증의 남자측 원인으로는 결혼초야의 실패, 성적결함, 성기교의 부족 등이 있다.

XIX. 早漏症의 治療

남자의 조루증은 전체남자의 50~60%가 되며 부부생활중에 가장 많은 불평이다. 조루는 저수지에 물을 채우기도 전에 배출하듯이 발기중추(勃起中樞)와 사정중추(射精中樞)의 협동이 결여되어서 온다. 조루는 완전히 발기했다가 곧 사정하는 것이고 이런 경향이 있으면 성교실패에 대한 공포감을 갖게된다. 임신의 공포, 여자에 상처를 줄까 두려워서 조루가 오기도 하고 성적자극 없이 강한 정신적 자극으로도 온다. 난처한 경우에 극도의 노력을 하든지 극도로

긴장되면 조루가 오나 다른 여자와는 그렇지 않은 수도 있다. 성경험의 첫번째에 조루가 오는 것은 생리적이다. 이같이 조루는 정신적인 원인에서 오지만 간혹 신경의 장애, 성기의 병, 지각과민 등으로 올 수도 있다.

조루는 여자에게 불감증을 일으킨다.

조루의 치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기의 병을 고친다. 2) 신경을 진정시키는 약물(Bromides, Belladonna scopolamine), 정신안정제(chlorpromazine)등을 쓴다. 3) 성교전의 적당한 음주는 근심걱정을 없애주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4) 성교 20분전에 음경에 아이콕크림(Aycock cream)을 발라 표면을 마비시킨 후 성교직전에 닦아내리면 사정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근래는 이 목적에 칼미날(calminal)을 써서 좋은 효과를 본다. 5) 가정요법으로는 첫째, 성교전 준비행위를 철저히 해서 처의 극치감이 사정과 맞도록 하고 둘째, 성교자세의 변화, 심호흡으로 근육의 이완, 성교중 정신을 쓰지 않게 하나에서 백까지 세는 방법 등이 있다. 셋째, 손으로 음경과 음핵의 상호자극으로 남자에게 사정의 전구간(前驅感)이 온 때 여자에게 알려 여자의 손을 음경에서 떼고 다시 자극을 시작하여 질

내의 마찰에 견디도록 음경의 자극에 대한 감도를 저하시킨다. 6) 척수맛사지, 요부근육운동 7) 신경증을 가져올 환경, 기회, 소질등을 없애준다.

여자의 조루증은 그리 많지 않으나 치료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칼미날 크림 같은 것은 성교 5분전에 외음부에 발랐다가 성기결합직전에 그 크림을 휴지같은 것으로 닦아버리고 목적을 이룬다.

XX. 强精療法の 効果

정력이 약할 때 체력을 증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에서 정력의 절륜(絶倫)을 위해 고대로부터 써내려오는 미약(媚藥)이 많다. 예를 들면 인삼, 녹용, 해수신 등이 있으나 이들은 다만 심리적 효과만이 있을 뿐이다.

발기중추를 자극하고 성기의 충혈 흥분을 일으키는 최음약(催淫藥)은 많다. 그 중에서도 요힌빈(Yohinbin)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그 효과는 잠정적이다.

충분한 휴식과 적당량의 음주는 정신과민한 신경을 억제하고 근심 불안에서 해방시키고 발기중추를 자극하여 말초의 혈행(血行)을 왕성케 하며 성교시간을 연장시킨다.

홀몬제 사용은 난용(亂用)의 폐단을 막아야 한다. 성기발육부전에는

남성홀몬, 갑상선기능저하시엔 갑상선홀몬을 쓴다. 기타 뇌하수체홀몬, 태반성홀몬제 등이 있다.

그러나 식사와 휴식이 강정요법으로서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단백질과 발기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아미노산(Amino acid)이 성욕증진에 유효하다. 이들 강정식의 요소는 동물성 단백질 특히 내장이 그 보급원이 되는바 하루에 70~90gm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XXI. 離婚의 豫防

미국에서는 3쌍의 결혼에 이혼이 1쌍 있고 일본은 10쌍의 결혼에 1쌍 있다. 남편의 연령이 25세 연장(年長)한 부부는 그 절반이 이혼하며, 20~24세 남자가 연장한 부부는 그 1/4이, 그리고 남편이 2세 연장인 부부는 이혼율이 제일 적다. 이혼이 많은 연령은 남자가 30~34세, 여자가 25~29세이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40%, 1명 있는 부부는 30%, 자녀 2명인 부부는 20%가 이혼한다. 즉 2명이하의 부부가 90%나 된다.

영국의 경우는 권태기에서 이혼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일본의 경우는 경솔한 결혼에서 이혼하는 경향이 많다.

이혼의 이유는 성생활의 불일치(不

一致가 그원인이 되는 경향이 가장 많고 자녀를 통한 애정을 얻지 못한 때, 월태기 성적차등을 들 수 있다.

이혼을 예방하려면 부부의 연령차를 적게하고 적당한 수의 자녀를 가질 것, 성생활의 조화를 유지하도록 힘을 것, 월태기의 예방으로 신선한 자극을 얻도록 노력하고 결핵등의 질병을 없애야 한다.

參 考 文 獻

1. Dickinson, R.L.: Atlas of Human sex Anctony, Williams and Wilkins Co. Baltimore, 1949.
2. Engle, E T.: studies on Test's and Ovary. Egys and sperm. C.C. Thomas, springfield, Ill, 1952
3. Huhner, M.: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sexual Disorders in the Male and Female including Sterility and Impotence, F.A. Davis, Co. Philadelphia, 1946
4. Kinsey, A. C. et al.: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W. B. saunders, philadeipiha, 1948
5. Kinsey, A. C. et al.: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Female, W. B. saundess, philadelphia, 1953
6. Maun, T.: the Biochemistry of semen, Mathuen and Co. London, 1954
7. Rommer, J. J.: steinlify, its Cause and its Treatment, C. C. Thomas, springfield. Ill., 1952
8. Vecki, V. G.: sexule Impotence, W B. Saunders, philadelphia, 1912
8. Walker, K. and strauss, E. B.: sexual Disorders in the Male, Casell Co. London, 1954
10. 金子篤壽: 男性 Impotence, 鳳鳴堂 日本, 東京
11. 錢島高: 日本人人體正常值表, 授報堂 日本, 東京, 1958
12. 經濟企劃院: 第8回 韓國統計年鑑, 經濟企劃院 서울, 1961
13. 金仁達: 人爲抑制操作이 人口增殖에 미치는 影響, 서울大學雜誌, 2:26-45, 1962
14. 李鶴松, 李熙永 男子不妊症治療에 對하여 最新醫學, 2:1215-1219, 1959
15. 李熙永: 精液에 關한 研究, 大韓泌會誌 2:35-52, 1961
16. 李熙永, 李鶴松: 男子不妊症에 關한 最新知見, 綜合醫學, 6:64, 95, 1961
17. 李熙永 外: 精管切除術의 臨床知見, 大韓泌會誌, 2:109-114, 1961
18. 李熙永: 男子不妊症에 關한 知見補遺 綜合醫學, 6:1963-1981, 1961
19. 李熙永: 精液早漏와 Impotence, 最新醫學 5:43-49, 1962
20. 李熙永 外: 遺尿症, 最新醫學, 5:1211-1219, 1962
21. 李熙永, 李鶴松: 精管切除術의 手技, 最新醫學, 5:1220-1222, 1962
22. 李熙永, 家族計劃과 醫術, 最新醫學, 5:1053-1084, 1962
23. 李鶴松, 李熙永: 家族計劃, 서울 東明社.
24. 李熙永: 男子不妊手術, 서울 海文社, 1962